

# 아껴쓰고 적게 버려

## 건강한 환경을 만듭시다



### 1. 건강한 환경은 건강한 생활의 필수 조건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는 건강한 삶의 필수조건이다. 그러나 최근들어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를 마시기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워지고 있다. 가정과 공장 등에서 나오는 환경오염물질로 인해 환경이 오염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이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물질로써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물과 공기, 음식물 등을 가리키는데 환경이 더럽혀졌을 경우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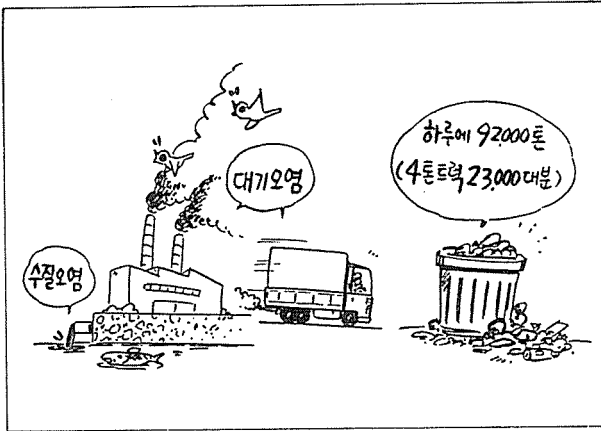
‘건강한 환경’이란 오염되지 않고 깨끗하게 보전된 환경을 말한다.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하여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고 환경을 오염으로부터 예방하는 것을 ‘환경보전’이라 한다.

### 2. 무엇이 건강한 환경을 위협하는가?

현재 우리의 환경은 건강을 위협할 정도로 오염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오염으로부터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환경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는데, 최근 환경오염이 심각해짐에 따라 일부 대도시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을 정도로 환경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하천의 수질오염을 한번 살펴보자. 우리의 강과 하천은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하수, 공장에서 배출되는 산업폐수, 농촌의 축산농가에서 흘러 나오는 축산폐수, 그리고 농약 등으로 오염되어 대부분 ‘상수원 1급수’를 초과하고 있다.

‘상수원 1급수’란 간단한 정수처리 후 마시는 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깨끗한 물을 말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하천은



최근들어  
가정과 공장 등에서  
나오는  
환경오염물질로 인해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 마시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워지고 있다.

간단한 정수처리 후 마시기에는 부적합할 정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약품을 이용해 오염 물질을 가라앉히거나 걸러서 처리한 후 각 가정에 공급하고 있다.

우리가 마시고 있는 공기 역시 자동차의 배기가스, 공장에서 나오는 연기 등으로 인해 오염되고 있다. 자동차의 배기가스에 포함된 아황산가스는 코와 목의 점막을 자극한다. 아황산가스의 오염이 심할 경우 코와 목의 점막이 상하며 이로 인해 감기와 같은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게 된다.

대도시나 공단 주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감기나 만성기관지염과 같은 호흡기질환에 잘 걸리고 쉽게 낫지 않는 이유는 이 같은 대기오염의 영향이 크다. 아황산가스 이외에도 먼지, 질소산화물, 오존,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등의 대기오염물질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 들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쓰

레기 역시 수질오염과 대기오염 못지 않게 우리의 건강한 환경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쓰레기 발생량은 국민 소득 증가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1991년 말 현재 전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양은 하루에 9만 2천톤 정도에 달한다. 이는 4톤 트럭 2만 3천대 분에 달하는 양으로써, 서울에서 대전까지 쓰레기 트럭이 매일 늘어설 정도로 많은 양이다.

국민 한사람이 하루에 배출하는 쓰레기 양은 2, 3킬로그램(kg) 정도인데 이는 선진국에 비해 두배나 많은 양이다. 이처럼 많이 발생하는 쓰레기로 인한 피해 역시 매우 심각하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릴 경우 지하수 오염을 일으키며 쥐와 파리, 모기와 같은 해충을 들끓게 한다. 또한 쓰레기는 악취를 유발하며 소각할 경우 대기오염을 일으킨다. 특히 플라스틱이나 비닐은 태울 경우 유독가스가 발생하므로 함부로 태우지 말아야 한다.

〈표〉 일상생활에서의 환경보전 생활지침

분 야	생 활 지 침
1. 쓰레기	적게 쓰고 적게 버린다. 과대 포장된 상품을 사지 않는다. 쓰레기를 분리하여 버린다. 가능한 일회용 상품을 구입하지 않는다. 음식물은 남지 않게 준비하고 남은 음식물 찌꺼기는 태울 수 있는 쓰레기와 섞이지 않게 싸서 버린다.
2. 수질오염	세제 사용량을 줄인다. 쓰고 남은 식용유는 하수구에 버리지 않고 신문지에 묻혀 쓰레기통에 버린다.
3. 대기오염	가능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한다. 쓰레기를 함부로 태우지 않는다. 자동차의 정비점검을 철저히 한다.

3. 건강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환경문제는 일상생활에서의 소비와 직결된 문제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환경을 보전하는 일 즉, 건강한 환경을 유지하는 일이란 ‘어떻게 소비를 줄일 것인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다시 말해서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근검, 절약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근검, 절약은 아껴쓰고 적게 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최근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많은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있으나 건강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좀더 많은 사람의 참여가 필요하다. 여기서 건강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민 모두가 노력해야 할 생활지침 몇가지를 제시해 본다.

첫째, 가정에서부터 적게 쓰고 적게 버려 쓰레기 발생량을 줄인다. 쓰레기는 수질오염, 대기오염, 악취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매립지난을 가중시킨다. 쓰레기 발생

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능한 일회용 상품을 쓰지 않아야 하겠다. 또한 냉장고, 세탁기와 같이 부피가 큰 가전제품이나 가구는 그냥 버리지 말고 중고물품 시장을 통해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수질보전을 위해 가정에서 사용하는 합성세제 사용량을 줄인다. 합성세제는 필요한 경우에 정해진 만큼만 사용한다.

셋째,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한다.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 정비점검을 철저히 하고 단거리 주행을 삼가며, 시속 70~80킬로미터 정도의 경제 속도로 운행하여 대기오염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

국민 모두가 건강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생활지침을 분야별로 나열하면 표 2와 같다.

아껴쓰고 적게 버리는 것은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생활비를 절약하는 데도 큰 몫을 한다. 건전한 가계운영과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해 아껴쓰고 적게 버리는 생활을 습관화하고 실천해야 하겠다. ㉔